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 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년회비: 2만원)

東友會衆

The Dong Guk Alumni News

1999年(檀紀4332년) 7月 26日 第181號 [1]

발행인 權魯甲
편집인 池燦京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층 2호
전화 : 733-3991-3
FAX : 733-3992

은행지로번호 7500891

새 천년의 중심 동국대학교 그리고 총동창회



◆ 지난 4월 21일 오전 7시 신라 호텔 토파즈룸에서 열린 제20대 신임 회장단 상견례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가진 회장단. 권노갑회장을 중심으로 총동창회와 모교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결의한 자리였다.(상단)

<관련기사 2면>

◆ 지난 4월 25일 남가주동문회 주최로 WHITTIER NARROW GOLF COURSE에서 열린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시작 전 한자리에 모여 동국인의 우의와 점을 느끼며 행복이 가득한 모습으로 정답게 한컷. 권노갑회장의 이번 미국 방문은 제20대 신임회장 취임 후 가진 공식적인 첫 행사였다.(하단)

<관련기사 15면>



지면안내

[2면]

- 제20 대 회장단 상견례 및
위촉장 수여식
- 박영식 동문 칸천증가 등정

[3면]

- 지부·지회 소식
- 야구부 우승

[4] ~ [7]면

- 동문 동정 및 인사 이동

[8] ~ [11]면

- 회비 납부 동문

[12]면

- 지부·지회 소식
- 모교 소식

[13] ~ [14]면

- 지부·지회 소식

[15]면

- 북미주 총동창회 / 중국
동문회

20대 회장단 상견례 및 위촉장 수여

권노갑 회장『동국인의 힘을 하나로 모아 동국발전 이룩하자』



◇ 권노갑(우측) 회장이 류주형 수석부회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제20대 신임회장단 상견례 및 위촉장 수여식」이 지난 4월 21일 오전 7시 신라호텔 토파즈 룸에서 권노갑(53 경제·국민회의 상임고문)회장, 황명수(53 정외·국민회의 부총재)명예회장, 류주형(57 농학·충남방적그룹 부회장)수석부회장과 배시영(63 경제·본회 부회장)북미주총동창회장, 송석구(62 철학·본회 고문)총장 등 70여명의 회장단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모임에서 권노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준 회장단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고 한 후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동국발전은 나 혼자서만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신임 회장단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이루어될 수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동문 여러분 모두가 매우 자랑스러우며, 이렇게 사회 각계 각종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동국발전을 이룩하자』고 말했다.

인사말을 마친 권노갑 회장은 황명수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였으며, 이에 참석 회장단

은 만장일치로 환영했다.

송석구 총장은 『제20대 신임 회장단 여러분들을 만나 매우 기쁘다』고 말한 후 『신임 권노갑 회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20대 회장단은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이끄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국발전을 위한 총동창회의 노력에 뒤지지 않도록 동국대학교도 각고의 노력으로 동국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노갑 회장은 부회장과 감사를 대표해 류주형 수석부회장과 강의현(60 경제·신농고시원 대표)감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권노갑 회장이 제20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처음 가진 이번 모임은 시종일관 회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얼굴을 익히며 동국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한편, 지난 6월 7일 오전 7시 앰버서더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는 권노갑 회장, 황명수 명예회장, 류주형 수석부회장, 송석구 총장, 이금규(65 법학·국회의원)부회장 등 70여명의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회장단 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권노갑 회장은

『내쁜 일정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회장단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끈끈한 동국애로 뭉친 16만 동국인의 역량과 관심을 하나로 모아 동국발전의 큰길로 나가자』고 말하며, 동국발전과 사랑은 우리 16만 동국인의 몫임을 강조했다.

권노갑 회장의 인사말 후, 지난 5월 12일 히말라야 칸чен중가봉 등정에 성공한 박영석(90 체교)동문은 칸чен중가봉 정상에서 찍은 기념 사진을 액자에 남아 권노갑 회장에게 전달했으며, 권노갑 회장은 『어려운 일을 해냈다. 이는 우리 동국인의 정신을 전세계에 알린 과거』라며 박영석동문을 격려하는 한편, 『박동문의 등정을 총동창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99 전국대학 야구 춘계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야구부 한대화(83 체교)감독과 김종립·김석기 코치 그리고 박정환 주장 등이 참석해 회장단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번 제2회 회장단 조찬회는 류주형 수석부회장이 전액 협찬했다.

한편, 권노갑 회장은 지난 7월 15일 12시 신라호텔 팔선(중식당)에서 본회 고문들을 초청하여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를 갖고 총동창회 발전에 대해 고문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지도위원과 운영위원 간담회는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 개최되는 북미주 동문 초청 글프대회 및 환영회와 같이 열릴 계획이다.

동국인의 발아래 세계가 있다

박영석 동문 칸чен중가 정복

히말라야의 철인 박영석(90 체교)동문이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 43분(이하 한국시간) 세계 제3위봉인 히말라야 칸чен중가(8,598m) 정상에 태극기를 꽂았다. 5월 3일 악천후로 등정을 포기하고 캠프4에서 철수한 뒤, 8일 다시 베이스 캠프를 출발한 박동문은 12일 오전 5시 15분 최종 전진캠프인 캠프4를 떠나 13시간 28분간의 사투 끝에 정상 탈환에 드디어 성공했다.

이로서 박동문은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10개째(8000m급 11개)를 등정했다. 지난 97년 한 해동안 6개봉을 등정, 세계기록을 세웠던 박동문은 이번 칸чен중가 등정 성공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세계 신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지난 5월 24일 귀국하자마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왔지만 내년까지 히말라야 자이언트 14봉 원등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끝없는 도전의지를 불사르는 박동문은 이번 등정에서 죽을 고비를 두 번 넘겼다. 하나는 13시간이 넘는 정상 정복과정에서 아무것도 볼수 없는 「설맹」에 걸린 것. 또 하나는 하산길에 캠프로 곧바로 복귀하지 못하고 8천1백m 설사면에서 「비atak」을 한 셈. 보통 8

천m 이상 고지의 눈구덩이에서 잘 경우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나 발가락 몇 개를 잘리야 할 정도가 돼, 살아남으면 천운이라는 게 산악인들 사이의 정설.

하지만 박동문이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난해 시각장애인 아일랜드 피크등반대의 원정대장을 자청, 시각장애인의 산행 노하우를 터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6일 브로드피크(8,463m)를 정복하기 위해 출국한 박동문은, 10월 시사광마 주봉(8,026m), 마칼루봉(8,463m)에 연속 도전해 철인 행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동문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사이언트 14봉 중 13봉을 정복하고 내년 여름 마지막 K2봉(8,011) 도전만 남게된다.

SBS인터넷(www.sbs.co.kr)에서는 2시간마다 박동문의 정상 등정 상황을 동시간대로 현장 생중계해 네티즌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한편, 송석구(62 철학·본회 고문)총장과 이인정(72 상학·대한산악연맹부회장·본회 이사)동문은 지난 6월 출국한 박동문의 정상등정을 기원하며 1천만원씩 지원했다.

〈자료제공=SBS〉



◇ 칸чен중가 정상에서 하늘과 하나된 박영석 동문

칸чен중가(KANGCHENJUNGA 8598M) 너를 알고 싶다

네팔과 시킴의 국경지대에 거의 남북으로 뻗어있는 칸чен중가 산군은 히말라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산군 이기도 하다.

세계 제3위의 고봉이며 높이 8,598m의 주봉인 칸чен중가와 중앙봉(8,478m), 남봉(8,491m), 서봉(8,505m) 일령(일룡강) 그리고 카마첸(7,903m) 등의 다섯 고봉이 연이어 솟아 칸чен중가라는 거대한 만년설의 성역을 이루고 있다.

칸чен중가는 티베트으로 「위대한 눈의 다섯 보고」라는 뜻으로

이름만으로도 칸чен중가가 독립봉이 아닌 거대한 산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간단히 「칸치」라고 불리는 이 산군은 주봉을 정점으로 네 개의 능선이 사방으로 뻗어있고 이들 능선사이로 광대한 빙하가 흐르고 있다. 즉 남서면에 야룽(Yalung GL), 남동면에 타룽(Talung GL), 북서면에 칸чен중가(Kang chenjunga GL), 그리고 북동면에 제무(Zemu GL) 빙하가 그것이다.

1905년 처음으로 영국인 크라울리(A.E. Crowley)가 시도를 했으나 문순의 영향으로 6900m 부근에서 후퇴하였다.

그 후 1955년 영국대가 남서벽에 도전하여 C1~C6를 설치하며 조지 밴드와 조 브리운이 정상등정에 성공하였으나 신생한 산의 정상을 밟지 않기로 디자일링의 주민들과 약속하였기 때문에 정상 바로 밑에서 멈추었다. 그들은 이 산의 수호신의 숭배 없이는 아무도 이 산을 오를 수 없다는 주민들의 신앙을 존중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87년과 88년에 걸쳐 부산 대륙산악회가 남서벽 루트로 등계 등반을 한 바 있고 91년 대전 충남연맹, 97년 대한산악연맹에서 등반을 했다.



◇ 지난 6월 23일 오전 7시 30분 신라호텔에서 권노갑 회장이 박영석 동문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권회장은 세계적으로 동국인의 긍지를 드높이고 있는 박동문을 격려하며, 『지속적인 지원으로 박동문이 8천m급 14좌 안동을 빠른 시간내에 이룰 수 있도록 돋겠다』고 말했다.

총동창회 직할 경주동창회 장제익 신임회장 취임

인적자원 발굴을 통한 자립기반 확립 목표



◇ 출동창회 직할 경주동창회 기관 이양하는 전임회장. 우측이 장제익 신임회장

동국대학교총동창회 직할 경주동창회(회장=김덕수·65 행정·본회 부회장)는 지난 6월 11일 오후 7시 코오롱호텔 오문홀에서 류주형(57 농학·충남남지 그룹 부회장)수석부회장, 최규철(66 정의·경주재직동문회회장·본회 상무이사)경주캠퍼스 부총장, 김일윤(92 경원·국회의원·본회 부회장)건설분과위원장 등 100여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김덕수 회장은 이임사에서 「그동안 임원과 동문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직활동창회장직을 이루었지만 수행할 수 있었다」며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한다. 앞으로는 장제익 신임회장을 도와 직활동창회가 동문들의 학회과 우의를 증진하는 장이 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동창회와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신임회장에게 우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회장에 취임한 장제익(89 한의·대세당한의원 원장·본회 부회장)회장은 「동문 여러분들의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한 후 「그동안 직활동창회를 훌륭히 이끌어 주신 김덕수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선배 회장님들의 업적에 금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직활동창회의 발전을 이룩하겠다. 임원여러분들과 동문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취임사에 대신했다.

8월 27일 동우장학금 지급 34명, 고시장학금 등 총 3천9백만원

본회산하 재단법인 동우장학회는 오는 8월 27일 오전 11시 모교 고무원 회의실에서 재학생 34명(서울캠퍼스 20명·경주캠퍼스 14명)에게 3천4백만원(1인당 1백만원)과

류주형 수석부회장은 권노갑(53 경제·국민회의 상임고문)회장을 대독한 축사에서 「이제 직할 경주동창회는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주지역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결속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국인의 힘을 바탕으로 동국이라는 큰 화폭에 동국사랑을 정성껏 새겨나가야 할 것이다」임을 강조하며 「서울의 총동창회와 경주직할동창회는 펼려야 펼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만큼, 계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선출된 신임회장은 그 임무가 실제로 막중한 민족, 동문들의 학회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임을 강조했다.

동창회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인적자원 확보를 1999년도 사업 계획 목표로 정한 직활동창회는 ▲참여하는 회원의식 고취 ▲인원의 확충 ▲일반회원 확보와 년회비 납부율 극대화 ▲모교행사 적극지원을 세부 방침으로 정했다.

한편, 장제익 신임회장은 그동안 직활동창회장을 맡아 동창회의 학회과 동문들의 학회과를 이끌어낸 김덕수 전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김덕수 전 회장은 장용철(66 상학)경주캠퍼스 교무처장, 지찬경(76 경행)본회 사무처장, 이영렬(89 국문)이사에게 직활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을 기려 공로패를 수여했다.

경 개교 제93 주년 기념식 축



◇ 지난 5월 7일 개교 90주년 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린 개교 93주년 기념식. 이 자리에서 권노갑 회장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출동창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겠다」고 말했다.

동국라이온스 한영희 신임회장 선출 본회에 장학금으로 3백만원 쾌척

동국인의 봉사단체인 동국라이온스(회장=김주필)는 지난 7월 20일 오후 7시 앰버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한영희(61 경제·한영무역(주) 대표이사·본회 지도위원)동문을 선출했다.

한편, 본회 권노갑 회장은 동국

라이온스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행사에서 동국라이온스는 본회에 3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본회 방문

▲ 이태근(58 정의·본회 부회장)북미주총동창회 명예회장 ▲ 배시영(63 경제·본회 부회장)북미주총동창회 회장 ▲ 박두일(66 정의·본회 부회장)벤쿠버동문화회 회장 ▲ 구영범(66 영문)뉴욕동문화회 회장 ▲ 박인동(83 사회)중국동문화회 회장

봄의 향기를 머금고 찾아온 우승 모교 야구부 3년만에 정상 등극



◇ 우승이 확정된 후 한대화 감독을 헤기며 치고 있는 야구부 선수들

권노갑(53 경제·국민회의 상임고문)회장, 황명수(53 정의·국민회의 부총재)명예회장, 송석구(62 철학·본회 고문)총장 등 많은 동문들이 동대문운동장을 찾아 응원한 모교 야구부(감독=한대화·83체교)가 96년 이후 3년만에 「99선국대학준계리그」에서 우승, 동대문운동장을 찾은 동국인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지난 5월 28일 동대문운동장에서 흥미대를 상대로 결승전에 임한 모교 야구부는 1회 초부터 불을 뿐 시작한 타선에 힘입어 12:8로 승리, 전국 대학 준계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정원석 선수는 최우수 선수상,

농어촌진흥공사동문화회 심재용 회장 취임 동문들의 결속을 통해 동문화회 발전

농어촌진흥공사동문화회(회장=심재용·69 상학·고지암 지하저장사업소장)는 지난 3월 27일 청계동 소재 고두방 음식점에서 본사·지사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도 제1회 모임」을 가졌다.

임원 개선과 회칙개정 등의 현안문제들을 논의하는 한편, 상호친목을 바탕으로 한 동문화회 발전과 본사·지사 동문화회 원간의 긴밀한 유대강화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단결의 장으로 승화된 이번 모임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심재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공사동문화회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대외적인 활동에 적극 대

처하여 동문화회를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 놓겠다」고 한 후 「모든 동문들의 굳건한 결속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지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번 모임에서 동문들은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한 발전을 이룩함은 물론, 굳건한 결속을 바탕으로 동국인의 우의를 더욱 굳건히 하여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이룩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동문간의 동정을 서로 긴밀히 연락하고, 예경사는 물론 모든 일에 뜻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사로운 일이라도 연락하여, 더욱 깊은 정을 나누는 동문화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모교 사랑으로 뭉친 고양시동문화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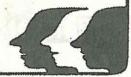
고양시동문화회(회장=이범석·57 정의)는 지난 6월 12일 오후 7시 일산구 풍동소재 만디린에서 정기도암을 갖고 2001년 일산에 준공 예정인 제3캠퍼스 및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적극 후원하기로 결의했다.

우선 고양시동문화회는 모교 출신 동문들을 중심으로 「자비의 벽돌 한장 쌓기」운동을 전개, 이후 회장단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방침을 세워, 고양시에 거주하는 동문 및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모임에서는 제3캠퍼스 및 불교종합병원 건립 후원회장에 최병재(61 영문·월간 한국논단 편집주간 실장·본회 이사) 동문을 선출했으며, 집행간사에는 조병찬(63 농학·모교생명지원과학대학장·본회 상무이사) 동문을 선출했다.

同門동정



本人의 근황이나 주위 동문들의 諸소식 등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바랍니다.

충남 인사 친선의 밤 개최

류 근 창 동문

▲류근창
(50· 문학· 충우회 회장· <주>청 구주택 고문· 본회 고문)동문은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 30분 쿠방회관에서 충남출신 각계 인사를 초청, 친선의 밤 행사를 열었다.

7위선열 추모제전 거행

황 명 수 동문

▲황명수
(53· 정외· 효창원7위선 열 추 모 회장· 국민회 의 부총재· 본회 명예회장)동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을 맞이하여 7위선열(이동녕, 김구, 조성환, 차이석,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의 숭고한 위훈을 기리며 고인들의 독립정신을 통일이념으로 승화시키고자 지난 4월 13일 오후 2시 효창원내 의열사에서 「효창원7위선열추모제전」을 거행했다.

명예문학박사

안 채 란 동문

▲안채란
(54· 국문· 학교법인 영석학원 이사장)동문은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경기대학교로부터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안동문은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영석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학교법인 영석학원 영석고등학교 개교 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안동문은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동국대학교여학사회 회장과 체란장학회 이사장, 영석장학회 이사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으로 동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중외박애상 시상식 개최

이 종 호 동문

▲이종호(58· 법학· 대한중외 제약 회장· 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5월 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40차 정기총회에서 제7회 중외박애상 및 박애봉사상 시상식을 가졌다.

한국기독교기도원총연합회 총재

김 월 환 동문

▲김월환
(58· 법학· 크리스챤저널 사장· 본회 이사)동문은 지난 5월 10일 열린 「제15차 한국기독교기도원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총재로 추대됐다. 한편, 김동문은 정부과천청사 경비대 교회 담임목사로서 월간 화보 크리스챤저널 사장으로 언론사업도 펼치고 있다.

국회의정활동 평가발표회 주최

민 병 천 동문

▲민병천
(58· 일원· 서경대학교 총장· 한국 유권자운동 연합 상임 공동대표· 본회 상무 이사)동문은 지난 6월 10일 오후 2시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제3차 「15대 국회의정활동 평가 발표회」를 가졌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 윤 총 동문

▲이윤종
(59· 법학· 임업협동조합 종양 회장· 본회 운 영위원)동문은 지난 3월 25일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에 있는 지역장이인시설 「향립지활원」에 밤나무 300그루를 기증했다.

임씨 화수회 회장

임 덕 규 동문

▲임덕규
(60· 법학· 한·인협 회장· 디플로마시지 회장· 본회 부회장)동문은 최근 「나주 임씨 화수회 총회」에서 회장을 신임됐다. 또한 임동문은 지난 7월 23일 오전 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룸에서 임동원 통일부장관을 초청해 「대북 포용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김 재 기 동문

▲김재기
(60· 경제· 내한주택보증(주) 비상임 고문· 본회 부회장)동문은 오는 2학기부터 모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돼 강의를 맡는다.

동문 복지에 큰 관심

유 영 수 동문

▲유영수
(60· 영문· 본회 부회장)농분은 해외 동문의 비지니스에 남다른 의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동문가족을 위한 장학금 조성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삼영기업 회장

이 상 윤 동문

▲이상윤
(60· 정외· (주)삼영기업 회장· 본회 문영위원장)동문은 최근 (주)삼영기업 회장에 취임했다. 본회 제20대 운영위원회로 위촉된 이동문은 석탄공사 사장으로 재직시, 본회 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왕성한 활동을 해 왔으며, 또한 본회 회장단의 일원으로서의 활동도 기대된다. (TEL : 541-0479)

국민체육진흥공단 10주년 기념

이 연 택 동문

▲이연택
(61· 법학·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4월 20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갖고, 「앞으로는 학교와 사회체육지원 강화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육성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교에 향나무 기증

정 상 영 동문

▲정상영
(61· 법학· (주)금강· 고려회학(주) 회장· 본회 부회장)동문은 최근 측백나무과인 가이쓰가 향나무 20년생 1백주(약 1억원상당)를 모교에 기증했으며, 모교 관리처는 이 나무들을 상록원 및 정보매체센터 주변의 조경에 활용했다.

중소기업 발전 계획

박 상 규 동문

▲박상규
(61· 국문· 국민회의 부총재· 본회 부회장)동문은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역할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동문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회장과 국민회의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중소기업 특위 위원장(장관급)을 맡고 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부회장

윤 재 식 동문

▲윤재식
(61· 정외· 본회 이사)동문은 지난 5월 24일 산업자원부 산하단체인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상임부회장으로 취임했다.

춘계학술대회 개최

송 석 구 동문

▲송석구
(62· 철학· 모교 총장· 한국철학회 회장· 본회 고문)동문은 지난 6월 5일 오전 9시 30분 이화여대 인문대 교수 연구관에서 「한국현대철학 1백 년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전통예술학회 회장

홍 윤 식 동문

▲홍윤식
(62· 문학연극· 모교 문화예술대학 원장)동문은 지난 6월 23일 한국전통예술학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한전기공(주) 사장

김 형 국 동문

▲김형국(62· 정외)동문은 지난 4월 12일자로 한전기공주식회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김 양 일 동문

▲김양일
(63· 정외· 을신일보 회장· 본회 부회장)동문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후배 신인 박영석(90· 제교)동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차후 한국마사회 사장이 허락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부회장으로 활성화 활동을 하고 있는 이동문은 이외에도 불우이웃돕기 등 우리 사회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 위로하는 등 다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2년 임기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대통령)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몽고식품 창업 기념식

김 만 식 동문

▲김만식
(63· 경영· 몽고식품(주) 회장· 본회 상무 이사)동문은 지난 4월 9일 몽고식품 창원공장 후생복지관에서 창업 제9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1905년 창업한 몽고식품은 창업 1세기를 준비하고 새로운 2천년대를 대비한다는 각오로 적극적인 내수진작과 해외 수출 활동 개발에 박차를 가지고 있다.

전국 국어국문학 학술대회

임 기 중 동문

▲임기중
(63· 국문· 모교 문과 대학장· 국어국문학장· 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5월 29일 9시 30분 연세대 제2인문관 강당에서 이틀간에 걸쳐 「21세기와 국어국문학」을 주제로 제42회 전국 국어국문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민회의 인천광역시 지부

여성특위위원장

김 영 희 동문

▲김영희
(63· 법학· 부평구청 어린이집 원장· 본회 운영위원장)동문은 지난 7월 19일 국민회의 인천광역시 지부 여성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박영석 동문 후원

이 경 배 동문

▲이경배
(64· 경제· 한국마사회 부회장· 본회 부회장)동문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후배 신인 박영석(90· 제교)동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차후 한국마사회 사장이 허락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부회장으로 활성화 활동을 하고 있는 이동문은 이외에도 불우이웃돕기 등 우리 사회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 위로하는 등 다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南韓地方法院管理處長

전진표 동문



▲ 전진표
(64 임학·
산림청동문
회장·본회
이사) 동문은

지난 5월 24일 산림청 인사이동에서 남부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발령됐다. 전동문은 현재 산림청 동문회장으로 있으며, 산림청에 근무하고 있는 동문들의 결속력과 동문회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고분자 아카데미 개최

성용길 동문



▲ 성용길
(64 화학·
한국고분자
학회장·모
교 교수·
본회 상무이사) 동문은 지난 6월 22일 오전 10시 과천 국립기술 품질원 중강당에서 「고분자 소재의 개발과 응용」이라는 주제로 제7회 고분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국민포장 수상

이능희 동문



▲ 이능희
(65 상학·(주)
태평양
부회장·본
회 부회장)

동문은 지난 4월 7일 열린 제27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보건증진 유공자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96년 대한화장품 공업협회 부회장을 맡아 오픈 프라이스제도 도입과 공정거래추진 등을 통해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정도경영 실현에 매진,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데 큰 공헌을 한 이동문은 또한 98년에는 육아·양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전국 11개 시설을 대상으로 5,000만원을, 전국 180개학교 여고생과 10개 전문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봉사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근속 표창패 수상

김의환 동문



▲ 김의환
(65 영문·
광운전자공
업고교사)
동문은 지난

5월 26일 학교법인 광운학원 창립 65주년을 맞아 광운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광운제에서, 근면성실, 검소절약, 담구실천을 실행하며 열의와 정성을 다해 지난 30년간 후배 양성에 기

여한 공로로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으로부터 근속 표창패를 받았다.

학술대회 개최

박선영 동문



▲ 박선영
(65 불교·
모교 교수·
한국종교교
육학회장·상
본회 상무이사) 동문은 지난 6월 18일 오후 9시 30분 모교 문화관에서 「종교와 사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명예 의학박사 학위 취득

조재호 동문



▲ 조재호
(65 불교·
동국의료원
장·본회 이
사) 동문은

지난 6월 9일 중국 헤이룽장주의 학대학에서 명예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공동연구를 위한 양교간 협정식을 가졌다.

공로패 수상

이원주 동문



▲ 이원주
(65 불교·
동대사대부
속종학교
장·본회
이사) 동문은 지난 5월 17일 명

성여고에서 개최된 「관세음보살 성상첨암 및 봉불식」에서 성상 건립의 발원 및 학자교장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오록원 동국학원 이사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장

김태곤 동문



▲ 김태곤
(65 행정·
한국지역난
방공사 사
장) 동문은

지난 3월 26일 열린 「한국열병합발전협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4·19혁명기념도서관 준공

박종구 동문



▲ 박종구
(65 경영·
4·19 혁명
부상자회 회
장·본회 상
무이사) 동문은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 4·19혁명기념도서관 로

비에서 민주와 정의의 보금자리인 4·19혁명기념도서관 준공식을 가졌다.

모교 경주캠퍼스 부총장

최규철 동문



▲ 최규철
(66 정외·
모교 교수·
경주자직동
문화회장·상
무이사) 동문은 지난 6월 1일 경

주캠퍼스 부총장으로 취임했다. 최동문은 그동안 체육관 관장으로 재직하며 모교와 경주 지역, 더나아가 대한민국의 체육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로 지난해 열린 제15회 동국인 체육 대회에서 대한체육회 재미체육 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경기대 홍보처장

윤산학 동문



▲ 윤산학
(66 법학·
경기대학교
홍보처장·
본회 부회
장) 동문은 지난 6월 21일자로 경

기대 홍보처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세무 회계사무소 개업

류영수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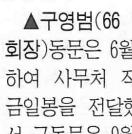


▲ 류영수
(66 행정·
본회 부회
장) 동문은 지난 7월 24

일 금천세무서 앞 삼주빌딩에 「류영수 세무회계 사무소」를 개업했다. 영동·청주·남양주·중랑세무서장을 역임한 류동문은 지난 6월 금천세무서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훌륭히 마무리했다. (TEL : 869-3777~8)

본회 방문·직원격려

구영범 동문



▲ 구영범
(66 영문·뉴욕지역
회장) 동문은 6월 말 본회를 방문

하여 사무처 직원을 위로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구동문은 9월 말~10월 초에 개최될 북미주동문 초청 골프대회 일정에 관해 본회 지찬경(76경행) 사무처장과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신문사 창립 1주년 기념식

최정혁 동문



▲ 최정혁
(66 상학·
한국예술체
육신문사 회
장·본회 상
무이사) 동문은 지난 7월 15일까

지 공단본부 대강당에서 99년도 명장, 우수지도자, 기관장려 우수사업체 선정을 위한 공적사항 평가 및 면접을 실시했다.

프리마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국예술체육신문사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한국공인물류관리사회 회장

차종근 동문



▲ 차종근
(68 상학·
유현양행 기
획관리본부
장·유한씨
엔티 사장·
본회 상무이
사) 동문은

최근 결성된 「한국공인물류관리사회 정기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추대됐다.

경주 교도소장

최규수 동문



▲ 최규수
(68 경행·
본회 상무이
사) 동문은
최근 경주
교도소장으로

취임했다. 교도행정의 모범을 보이는 한편, 총동창회의 발전에도 한몫을 하는 최동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

한국불교금석문 교감역주 완간

이지관 캐스팅



▲ 이지관
(69 일원·
가산불교문
학 연구원
장·본회 고
문) 캐스팅은 「교감역주(校勘譯註) 韓代高僧碑文(歷代高僧碑文)」 조선편 1을 펴냈다. 이로서 현존하는 금석문 자료 중 신라·조선시대 역대 고승들의 비문을 91년부터 총정리 해온 지관 캐스팅의 「한국불교금석문 교감역주」(전 6권)가 완간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동문



▲ 이범진
(69 정외·
본회 상무이
사) 동문은
지난 5월 10

일 국민회의 경북도지부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72년 민주공화당 공채 7기로 당료생활을 시작한 박동문은 민정당 중앙당 사무국 의원실장,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1급상당) 등을 거쳐 국민회의 중앙당 특별위원회 노인복지 부문 부위원장으로 역임했다.

99년도 우수사업체 선정 평가

최상용 동문



▲ 최상용
(68 행원·한
국산업인력관
리공단 이사
장·본회 운
명위원회 위원) 동문은 지난 7월 15일까

지 공단본부 대강당에서 99년도 명장, 우수지도자, 기관장려 우수사업체 선정을 위한 공적사항 평가 및 면접을 실시했다.

《6면에 이어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한현동문

▲한현(70 행정)동문은 지난 4월 1일자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발령됐다.

중국 베이징 공안국 방문

이무영동문

▲이무영
(71 행정·서울경찰청장·본회부회장)동문은

중국 베이징 공안국을 방문, 양국 수도경찰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치안현안과 관련된 정보교류 및 토의를 위해 지난 6월 21일 출국했다.

안양여자중학교 교장

원종면동문

▲원종면(71 정의)동문은 지난 3월 2일자로 안양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됐다.

영등포 교도소장

하근수동문

▲하근수(71 법학)동문은 최근 영등포 교도소장으로 취임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차장

김희옥동문

▲김희옥
(72 법학·본회부회장)동문은

지난 6월 15일 서울지검 남부지청 차장으로 승진·발령됐다.

(주)이브자리 영업본부장

강진원동문

▲강진원
(72 경영·본회이사)

동문은 지난 6월 10일 (주)이브자리 크레이브사업부 영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본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TEL : 569-1600 · 1662)

호텔 롯데부산 영업담당이사

김승웅동문

▲김승웅
(72 경영·본회이사)

동문은 지난 4월 28일 회사의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주)호텔 롯데부산 영업담당 이사로 발령됐다.

국제시민스포츠총회 참석

선상규동문

▲선상규
(72 응생·한국체육진흥회장·본회상무이사)동문은 지난 6월 6일까지 이탈리아 비비온에서 열린 제6회 국제시민스포츠 올림피아드 총회 및 대회에 참가했다.

청소년 위한 수계활동

오록원큰스님

▲오록원
(73 행원·동국학원재단이사장)큰스님은 지난 4월 24일 LA 동국로얄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여 학위수여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총동창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록원 이사장은 청소년 교화를 위한 수계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청소년예술경연대회

박현성큰스님

▲박현성
(73 행원·중앙승강학교총장·본회지도위원)큰스님은 지난 5월 30일 모교 중강당에서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전국청소년예술경연대회」를 열었다.

강원 국제관광엑스포 개최

김진선동문

▲김진선
(74 행정·강원도지사·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본회부회장)동문은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강원도 속초시 청초회 일원에서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이란 주제로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한다.

자민련 남동구을 지구당 후원의 밤

박태권동문

▲박태권
(75 정의·자민련남동구을지구당위원장·본회부회장)동문은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인천소재 로얄호텔 신관 2층에서 「자민련 남동구을 지구당 후원의 밤」을 열었다.

김상숙 서전 개최

김상숙동문

▲김상숙
(76 일원·동대부속고등학교교감·본회이사)동문은 지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인사동소재 백악예원에서 지난 15년간 봇글씨를 배우며 모이온 서예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김상숙 서전」을 개최했다.

굿모닝증권 상임고문

박수천동문

▲박수천
(77 행정·굿모닝증권상임고문·본회부회장)동문은 양평 지역사회 발전과 종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남다른 의욕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동문은 현재 양평발전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라이온스 장학금 지급

조규동문

▲조규(77 경원·서울국제라이온스장학회이사장·본회지도위원)동문은 지난 3월 8일 동국·동경원·백상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이 참석한 서울 강북구 제10지역 합동월례회에서 농국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0개 대학교에서 선발된 라이온스 장학생 11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감사

김강녕동문

▲김강녕
(77 정의·조화정치연구원장)동문은 지난 98년 12월 12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개최된 「한국국제정치학회 정기총회」에서 감사에 선출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홍익대 국어교육과 교수

김종의동문

▲김종의
(80 국교·홍익여고교사·문학박사)동문은 그동안 홍익대 문과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활동해 국어교육과 겸직교수로 발령됐다.

령됐다.

김동문은 경찰대학장을 역임한 김종일(58 법학·경찰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동문의 친동생으로, 형제가 함께 모교의 명예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 탁구연합회 회장

김환진동문

▲김환진(80 경행·자민련수원팔달지구당위원장)동문은 지난 6월 23일 국민생활체육회 경기도 탁구연합회 제3대 회장에 취임했다. 수원시 체육회관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김환진 회장은 「생활체육을 통한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일조할 수 있도록 경기도 탁구연합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코스모스포츠 빌 개업

구자선동문

▲구자선
(81 경원·(주)코스모스포츠 빌대표이사회장·본회부회장)동문은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담배인삼공사 사옥내에 (주)코스모스포츠 빌 개업식을 가졌다.

한국방송연예인 노동조합 위원장

이경호동문

▲이경호(81 연영)동문은 지난 4월 12일 한국방송연예인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병무청장

오점록동문

▲오점록
(85 경원·본회상무이사)동문은 지난 5월 26일 병무청장으로 발탁됐다. 오동문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따르는 후배들도 많으며, 정확한 판단력과 함께 업무 추진능력도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동문회 발전에 남다른 애착

고한준동문

▲고한준
(88 행원·본회부회장)동문은 수시로 일본을 와대하며 정치와 동문회 발전을 위해 활성화 활동을 하고 있다. 고동문은 현재 자민련 제주도지부장을 맡고 있다.

대동섬유 창업

김장철동문

▲김장철(89 정외)동문은 지난 3월 8일 섬유원사 수입 및 국내 판매와 섬유원단을 대만으로 수출하는 대동섬유를 창업했다.(TEL : 465-8588)

삼창기업(주) 창립기념식

이두철동문

▲이두철
(91 지원·삼창기업(주)회장·본회부회장)동문은 지난 5월 16일 트리메탈코리아(주) 공장에서 삼창기업(주)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호남향우회 전국협의회 회장

이영호동문

▲이영호
(91 경원·(주)영상미디어대표이사회장)동문은 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고흥군향우회 회장을 역임한 후 최근 호남향우회 전국협의회 초대회장으로 당선됐다.

국제이사회 참석

김일윤동문

▲김일윤
(92 경원·국회의원·국제라이온스의원연맹)동문은 지난 5월 27일 오후 3시 연세대동문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인제 국민회의 당부위원장을 조정해 「남북관계의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통일정책 강연회를 열었다.

전국대학동창(문)회 사무처책임자 간담회 19개 대학동창(문)회 관계자 42명 참석



『제6회 전국대학동창(문)회 사무처 책임자 간담회』가 지난 6월 3일 오후 7시 한양대학교내 한양대총동문회관 7층 스카이라운지에서 19개대학동창(문)회 관계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180억을 투입한 국내 최대·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한양대총동문회관 준공을 기념하여 최운영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열리게 된 이번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우선 대강당에 모여 한양대총동문회에서 마련한 한양대학교와 총동문회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발전 방향과 총동문회관 설립과정 및 각 층의 쓰임새 등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보며 한양대학교와 총동문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7층 스카이라운지에 마련된 모임장소로 이동한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안부와 새로운 소식 등을 물으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했다. 먼저 한양대총동문회 최운영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희 한양대총동문회관을 방문하여 개관을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지난 5월에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했으나, 회관 미무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6월에 모시게 되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좋은 기억으로 여러분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모시겠다. 즐겁고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찬경 본회 사무처장은 『최운영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뼈를 깍는 노력으로 오늘의 한양대총동문회관을 설립할 수 있었다』며 『실력과 저력을 보여준 한양대총동문회 회장님과 회장단, 그리고 최운영 사무총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치하한다. 앞으로도 이 모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 모임의 발전을 위해 한층 더 정진하도록 하자』고 말한 후, 국민대총동문회 전호섭 사무국장과 고대 교우회 김상국 직원, 상평대총동문회 조

금주 기획위원, 서강대총동문회 전준영 간사, 흥의대총동문회 이정아 직원등 간담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얼굴들을 소개했다.

사회를 맡은 강영신 한양대총동문회 조직위원장은 한원일 연대동문회 홍보실장에게 전국대학동문회보 발송료 조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으며, 이 자리에서 한원일 연대동문회 홍보실장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정부로부터 민족할 만한 회신을 받았다』고 한 후 『정보통신부는 6월부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정기 간행물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66-75%의 우편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는 모두 여러분들이 자기일처럼 도와준 덕분이다. 앞으로는 겨울간과 계간으로 발행되는 회보도 우편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찬경 동국대총동문회 사무처장의 결산보고(회비 및 지출내역)를 끝으로 1부를 마무리하고, 지유로운 분위기에서 한양대총동문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풀코스 정식을 들며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번 모임을 통해 참석자들은 전국대학동창(문)회 사무처 책임자 간담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더욱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다같이 발전하는 동창(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다음 제7회 모임은 9월 본회가 주최하며, 11월에는 경희대총동문회에서 제8회 송년간담회를 갖고 친목을 도모한다.

이번 모임에 참석한 각 대학동창(문)회 사무처 관세자는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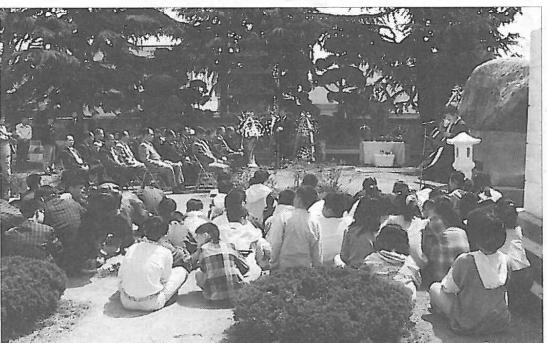
▲강원대총동창회 정재경 사무국장 ▲건국대총동문회 김정규 사무총장 ▲경북대총동창회 이상례 사무처장 ▲경희대총동문회 구현서 사무국장 / 강선욱 기자 ▲국민대총동문회 전호섭 사무국장 ▲고대교우회 이종상

관리국장 / 김상국 직원 ▲단국대총동창회 신현영 편집국장 ▲동국대총동창회 지찬경 사무처장 / 최현희 간사 / 이상호 편집장 ▲동덕여대총동문회 니촌희 사무총장 / 김자연 간사 ▲동아대재경총동문회 김병호 사무국장 ▲상평대총동문회 이유나 간사 / 조금주 기획위원 ▲서강대총동문회 전준영 간사 ▲연세대동문회 한원일 섭외홍보실장 ▲이대동창회 박형옥 총무 ▲인하대총동창회 전근상 사무국장 ▲중앙대총동창회 조영배 상임부회장 / 이경호 장학국장 / 조윤구 편집주임 ▲한국방송대총동문회 전영한 장학위원회 / 이순희 사무부장 / 박남근 조직국장 ▲한양대총동문회 최운영 사무총장 / 김윤희 총무과장 / 강영신 조직관리과장 / 조직관리부 김달호 / 김희경 / 총무부 한선경 / 편집부 흥은숙 / 김윤성 · 고태연 ▲흥의대총동문회 김백수 사무국장 / 김미연 기자 / 여정은 총무 / 심상미 / 서현정 / 이정아. 이상 19개대학 동창(문)회 42명.

노회두 열사 순국 39주년 추모제 개최 서천군 동문회

서천군동문회(회장=김정환 · 82 행원 · <주>청운아스콘 대표이사)는 지난 4월 19일 서천초등학교 교정에서 「노회두열사 순국 제39주년 추모제」를 개최했다. 서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박영조), 서천중학교 총동창회(회장=나종곤), 정향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노홍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추모제에는 초·중학생과 대전동문회 조은구(68 경제 · <주>동양철강 대표이사 · 본회 부회장)회장 등 각계인사 150여명이 참석해 노회두 열사의 뜻을 기렸다.

4·19의 거대한 서천지역에서



◇故 노회두 열사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동국인

모교 '99 우수연구센터 선정

SRC 48억 2천만원, ERC 48억 8천만원 지원 받아

사립대학 최초로 선정



강태원 교수
물리반도체과학부



이진구 교수
전자공학과

의 연구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모교가 추진하고 있는 SRC, ERC는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축인 반도체 및 정보화 분야의 최첨단 이론 및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부가 가치가 매우 높은 분야이며, 이에 대해 모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향후 산학협력 및 대학발전기금 조성 등 엄청난 부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수신입생 유치, 졸업생 취업 확대, 연구기자재의 확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교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연구센터의 연구내용과 관련된 분야에 이미 15년 이상 일관된 지원정책을 실천하여 왔으며, 현재 조성중인 일산 캠퍼스를 국제 수준의 Science Park로 육성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한 결과, 한양대와 사립대학 최초로 우수연구센터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지정으로 모교는 이공계 분야의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며, 타분야에까지 지대한 파급효과를 주어 대학 전체

모교(총장=송석구 · 62 철학 · 본회 고문)가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지정하는 '99 우수연구센터에 새롭게 지정됐다.

이번 '99 우수연구센터 선정에는 지난해 12월 전국 47개 대학 205건의 신청을 받아 800여 명의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1차 23개 내학 73개소를 선정하고, 다시 15개 대학 30개 소에 대한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99년 7월에 8개대학 13개소를 지정했다.

모교는 이번 우수연구센터 지정에 SRC(Science Research Center 기초 과학 연구 센터) 분야와 ERC(Engineering Research Center 공

학연구센터) 분야에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물리반도체과학부 강태원(73 물리)교수)와 밀리미터 신기술연구센터(전자공학과 이진구 교수) 각 1개씩 신청하여 두 개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연구센터에 대해서는 3년 단위로 실시되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현상유지, 확대, 축소) 또는 지원중단 등의 여부가 결정되며, 최장 9년동안 연 7-12억원 정도씩 지원 받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모교는 이공계 분야의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며, 타분야에까지 지대한 파급효과를 주어 대학 전체

경영대학원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이광세 현회장 재선출·부회장 6명·이사 36명 확충



경영대학원동문회(회장=이광세·88 경원·삼광사 대표·본회 부회장)는 지난 3월 29일 여의도 63빌딩 20층 연회장에서 역대회장, 경영대학원장, 임원과 동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강운석(82 경원)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유영경(87 경원)·홍성우(92 경원) 감사보고를 시작으로 ▲98년도 사업실적 ▲예산 수입 및 지출 결과 보고 ▲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인)을 인건으로 옮겨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광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은 IMF 한파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전 임원과 동문들이 본회를 위해 성심어린 후원과 단합된 모습으로 이끌고 밀어준 덕분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드리며 99년 한해도 더욱 전진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경영대학원 제16대 원장으로 취임한 조희영(63 경영·본회 부회장)동문은 「모교의 발전이 동문회의 발전이고 동문회가 발전해야 모교가 빛나다」고 한 후 「10대, 12대 경영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제가, 이제 16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평소 동문회를 관

심있게 지켜본 결과, 동문회가 건실히 성장한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다. 앞으로도 계속 무궁한 발전을 이루는 동문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0대 회장을 역임한 박태권(75 정의·자민련 인천 남동구을 지구당 위원장·본회 부회장)고문은 이 자리에서 「90년대 초반까지도 동문회는 기반조성이 연약하고 자금능력이 부족해, 본회를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굳은 신념과 정신력으로 지켜온 결과 오늘과 같이 성공한 동문회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한 후 「후배 동문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형집(85 경원·대성강판인쇄(주) 대표이사·본회 부회장)명예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지난 2년동안 이광세 회장은 1억원의 발전기금을 포함하여 2억5천5백만원의 기금 증식으로 총 현금 5억8천7백32만원을 조성하여 이를 전액은행에 장기예금조치하였다. 또한 본회 사무실용 부동산을 포함하여 8억5천6백8십만원의 자산을 확보하였으며, 99년도 예산편성에서도 6천만원을 증가시켜 단결과 화합의 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공헌할 수 있도록 한 동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한 후 「이광세 회장을 비롯해 임원과 전 동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형집 명예회장은 제14대 회장으로 이광세 현 회장을 재 추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권노갑(53 경제·국민회의 상임고문)총동창회장과 안병호(82 행원·신진철강(주) 대표이사·본회 운영위원회)행정대학원동문회장이 화환을 보내와 이번 행사를 축하하였다.

한편, 이광세 회장을 비롯해 이형집 명예회장, 조규·박태권·구자선 역대회장, 박영상 부회장 등 20여명의 경영대학원동문회 회장단은 지난 6월 14일 인천 경기지방 볍무청으로 역전한 허상구 동문을 방문하고 영전을 축하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병무행정의 발전된 모습을 보며 현장 체험을 하는 등 동문들의 우정을 돋두히 하는 한편, 모교와 본회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자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40여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며 청렴과 멀사봉공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던 허상구 동문은 그중 30여년간 병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병역지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병역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병역의무 부과의 공정과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통해 투명하고 열린 병무행정을 구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광주동문회 예름수련회

광주동문회(회장=정덕호·61 영문·대동화성(주) 회장·본회 부회장)는 지난 7월 11일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가족 예름수련회」를 가졌다.

부여 백마강 낙화암, 고란사와 논산 관촉사(은진 미륵)를 방문한 이번 수련회에서 동문들은 선인들의 멀을 느끼며 자연과 하나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의과동문회 체육대회

제서울·경인지역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동문회(회장=정주화·87 한의)는 지난 5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모교 서울 캠퍼스 대운동장에서 본과 3, 4학년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선수부의 정을 돈독히 쌓았다



◆ 지난 4월 23일 경주소재 요석궁에서 개최된 지역개발대학원 총동문회 제19차 이사회. 이두철(91 지원·삼성기업(주) 회장·본회 부회장)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독려하고 있다.

이석용동문 정외과동문회 회장 취임

『발로 뛰는 동문회장 되겠다』



정치외교학과동문회는 지난 5월 27일 오후 7시 강남 상록회관 5층 대연회장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이석용(58 정외·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본회 부회장)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석용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동문회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본 동문회와 정치외교학과의 발전을 위해, 더 나아가 총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98년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의 건 ▲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등을 주요 안건으로 처리했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정외과동문회 조직 활성화 ▲동문회 운영기반 확보 ▲동문수첩 발간 ▲「큰 지혜」발행(전/후기 2회) ▲후배 지원 사업 전개(모의국회·학술세미나 등) 등을 99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하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정재철(52 정외·신한국당 고문)고문과 황명수(53 정외·국민회의 부총재)명예회장도 참석하여 후배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98년

법과대학동문회

신임회장에 오진모 현회장 재선출



◆ 법과대학동문회 회장에 재선출 된 오진모 동문·법과대학 발전방안 및 계획을 동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법과대학동문회(회장=오진모·61 법학·(사)대한부동산학회 회장·본회 부회장)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30분 모교 상록원에서 문한성(83 법학·정민종 학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본회 이사)사무국장의 사회로 「199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오진모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

재선출된 오진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과대학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금 조성을 통해 좋은 학생들을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후배 학생들이 사법고시 등 국가고시에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후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과대학동문회는 동문들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동문회 명부를 발간하고 동문들에게 우송하는가 하면, 21세기 정보화 지식사회에 대비하여 모교 법과대학의 발전방안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인식 아래 법과대학동문회와 학교, 불교계 및 학부모들이 함께 한 「동국법대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후원의 봄」을 갖는 등 모교와 법과대학 동문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김동정(57 법학·신사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본회 부회장), 임덕규(60 법학·월간 디플로머시지 회장·본회 부회장), 정상영(61 법학·(주)금강·고려화학(주) 회장·본회 부회장), 문하성(동문에게 각각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편, 법과대학동문회는 동문들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동문회 명부를 발간하고 동문들에게 우송하는가 하면, 21세기 정보화 지식사회에 대비하여 모교 법과대학의 발전방안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인식 아래 법과대학동문회와 학교, 불교계 및 학부모들이 함께 한 「동국법대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후원의 봄」을 갖는 등 모교와 법과대학 동문회의 발전을 위한 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최첨단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도입



개원이래 지역주민들의 보건 향상과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온 동국의료원(원장=조재호·65 불교·본회 이사)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최첨단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도입하여, 지난 5월 18일 11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병원장=정필현)에서 오록원 이사장, 송석구(62 철학·본회 고문)총장, 교무위원 및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도입가동식 및 종합검진센터 확장이전 개소식」을 성황리에 거행했다.

또한 오전에 거행된 MRI 도입 축하 가동식에 이어 오후 4시부터는 경주, 포항, 영천 지역에서 현재 활동중인 의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양대의대 방사선과 함창국 교수의 「근골계, 신경계의 MRI이용법」, 경북 대의대 방사선과 강덕식 교수의 「MR의 일반적 이용법」, 울산대의대 방사선과 임태환 교수의 「MR의 특수이용법」에 대

한 주제로 동국대 경주병원의 MRI 도입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에 도입된 MRI는 세계적인 진단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인 독일 지멘스사의 최신기종인 Magnetom Vision Plus 1.5T(도입 금액 : US \$1,321,810)로써, 기존 MRI에 비하여 인체내 조직의 대조도 및 해상도가 아주 우수하고 검사시간이 짧으며, 다양한 활용 기법을 보유하고 있어 뇌, 척추, 복부, 골반, 골관절, 혈관 질환, 흉부질환, 심장, 부인과 질환 등 인체의 모든 부분에 대해 획기적인 검사가 가능한 타월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한편, 경북지역 유일한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경주병원은 경주지역 최초로 MRI를 도입함으로써 그 동안 30만 경주시민들이 MRI 활용을 위하여 대구 등 대도시 종합병원으로 가야했던 불편함을 비로소 해소하게 되었다.

경주캠 국악과 전주에서 솜씨 뽐내 전북동문회 동문들 금일봉 전달



제41회 전주 풍남제를 맞아 동서화합을 위한 대학생 국악공연이 지난 6월 20일 오후 3시 덕진 공원 특설무대에서 2시간동안 베풀어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 협의회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공연은 90명으로 구성된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악과 국악예술단(단장=박상진 교수)이 출연, 아리랑 등 국악관현악 9개 프로그램을 시민들과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전북지부 동문들이 대거 참여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은 우리 체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수소원자의 자기적 특성을 이용하는 기술로서 수소원자들은 높은 자기장내에서 무선 고주파의 자극을 받으면 일정한 신호를 발신하게 된다. MRI 컴퓨터는 이 신호들을 조합해 신체의 다양한 단면을 만들어 내며, 방사선 피폭이 전혀 없이 신체의 미세한 조직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종양, 혈관질환 등의 병명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최첨단 영상기법이다.

손재현 무용단 국제 댄스 페스티발 참가

손재현(모교 체육교육학과 교수)무용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8일까지 이스라엘 KAR-MIEL CITY에서 개최된 「카미엘 국제 댄스 페스티벌」에 이스라엘 문화성과 UNESCO, 카미엘 행사본부의 초청을 받아 한국의 전통 창작무용을 선보였다. 전통무용 5개국, 현대무용 5개국, 발레단 1개국, 이스라엘 150여개 무용단이 참가하여, 무용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 공연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열린 이번 국제 댄스 페스티벌은 단일 행사로서는 세계 최대의 규모이며, 행사기간중 약 20만명 이상이 관람했다.

행정대학원동문회 정기총회

안병호 동문 제14대 회장 취임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행정대학원 동문회 임원(원내는 안병호 신임회장)

행정대학원동문회(회장=박익주·61 정외·본회 지도위원)는 지난 3월 25일 오후 7시 모교 동국문화관 그림에서 「제1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상현(68 경행·본회 상무이사)신임원장 취임 축하연 행사를 가졌다. 박익주 전회장, 윤일규(69 행원·본회 지도위원), 김성태(79 행원·일광 공구공업(주) 회장·본회 상무이사), 손상출(84 행원·효창건설(주) 대표이사·본회 운영위원)자문위원과 이황우(67 경행·모교 교수·본회 상무이사)

전원장, 이상현 원장 등 8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14대 행정대학원동문회장으로 취임한 안병호(82 행원·(주)신진철강 대표이사·본회 운영위원)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훌륭하신 전임 역대 회장을 보좌하며 17년 동

인의 회장 및 수석부회장으로 지내온 경험과 전임 박익주 회장이 잘 이룩해 놓은 동문회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석봉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98회계년도 결산서 승인의 건 ▲99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14대 동문회장 추인의 건 등을 주요 안건으로 처리했다.

신임 안병호 회장의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다.

▲미 이스턴 워싱턴대학 수료
▲강동구동문회 창설 및 회장 역임

▲경영대학원동문회 자문위원
▲성내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새마을봉사단 강동구 협의회 위원장
▲강동구구 하나님당 부위원장(現)

동국 문학인회 창립

초대회장 문효치 동문



동국문학인회는 지난 6월 16일 모교 동국문화관에서 초대회장·본회 이사) 문효치(66 국문·한국현대시인협회 부회장·본회 이사)동문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모교 출신 문인들이 모여 총동창회와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정보 교류를 통해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창립된 동국문학인회는 앞으로 ▲동국시집 발간 ▲동국문학세미나 개최 ▲황명(전 문인협회 이사장)선배 시비 건립 ▲동국문학상 시상 등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새롭게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신용선, 이상문(74 국문), 이원규(75 국문), 박찬(72

국문), 김강태(79 국문) ▲감사=방원석(58 정외·(주)영림전설 부회장·본회 이사) ▲총무=김춘식 ▲지도위원=최재복(57 국문), 강민(56 국문), 신경립(57 국문), 흥기삼(66 국문), 흥신선(70 국문), 박제천(68 국문), 조상기(62 국문), 조병무(64 국문) 외 다수.

4·19혁명 동지회 발기총회 초대회장 김대건 교수

동국대학교 4·19혁명동지회는 지난 6월 4일 한남동 다래원에서 발기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에 김대건 교수를 민장일치로 선출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상무위원회 의장에 조희영(63 경영·모교 경영대학원장·본회 부회장) 교수, 수석부회장에 김정길(63 법학)동문, 사무총장에 심재익(64 농학·본회 상무이사)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LA동문화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권노갑 회장 참석 격려



◆ 골프대회 후 북미주 동문들과 함께

북미주총동창회 LA 지역동문회(회장=김경재·69 농학·본회 부회장)는 지난 4월 25일(일요일) WHITTIER NARROW GOLF COURSE에서 권노갑(53 경제·국민회의 상임고문)회장, 송석구(62 철학·본회 고문)총장 등 100여명의 동문과 내외구빈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화창한 날씨가 이날 골프대회를 축하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는 이민희(56 정의·본회 지도위원)고문, 이태근(58 정의·본회 부회장)명예회장 부부, 배시영(63 경제·본회 부회장)북미주총동창회장, 배문혁(70 상학·본회 상무이사)LA 명예회장, 김종한(70 상학·본회 상무이사)LA 저회장, 서영수 동국로얄한의과대학 총동창회장, LA 거주 동문 및 동문가족, LA 총영사, LA 경찰주재관 등 많은 동국인들이 참석하여 동문간의 단합과 우의를 돋구히 하였다.

골프대회도 친목을 다진 동문들은 바로 OXFORD PALACE HOTEL로 자리를 옮겨 저녁 만찬회에 참석하여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정답을 나누며 하나된 동국을 느꼈다. 이 자리에서 배시영 북미주총동창회 회장은 「북미주 동문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동문 단합 골프대회를 열어달라」고 권노갑 회장에게 제의 하였으며, 권회장은 바로 배

시영 북미주총동창회장의 제의를 수락하며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는 동문들을 서울로 초청해 동국인의 우의와 정을 나누는 자리를 성성껏 준비하겠다」고 응답해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박았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경재 LA 지역회장은 「권노갑 신임회장이 해외 나들이 첫 방문지로 LA를 결정한데 대하여 동문 및 가족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총동창회와 모교가 발전에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권노갑 회장은 「이곳 미국 LA에 정착한 우리 동국 동문 및 가족들은 이민 교포의 모든 난관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영광을 차지한 만큼, 그것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다. 앞으로도 계속 동국정신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모든 일에 정진하는 동국인이 되길 바란다」며 그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권회장은 「본인도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인고의 날을 거쳐 오늘날까지 불굴의 한마음으로 정진한 결과 오늘의 본인이 있었다」고 다시 한번 상기하며 남다른 감회를 피력했다.

특히 권노갑 회장, 송석구 총장, 류주형(57 농학·충남방적그룹 부회장)수석부회장, 배시영 북미주총동창회장, 이태근 북미주총동창회 명예회장, 김경재

LA회장, 배문혁 LA 명예회장, 서영수 동국로얄한의과대학 총동창회장 등 이날 만찬회에 참석한 동문들은 LA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 가족의 자녀들을 위해 학자금 마련 즉석 행사를 가져 미희 5만불을 모금하여 LA 동문회장에게 전달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장정현(67 경영·본회 부회장)부회장도 그뜻을 같이 하겠다는 등 LA 동문들의 뜨거운 동국정신과 동국애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비록 3박 4일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세계 어느 대학동창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끈끈한 결속력과 동국사랑을 국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동국인의 만남이었다.

한편, 4월 24일(토요일)에는 LA MARRIOTT DOWNTOWN HOTEL 그랜드 볼룸에서 권노갑 회장, 송석구 총장, 오록원 이사장을 포함해 내외구빈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A 동국로얄 대학교 졸업식이 열렸다. 미국 현지인 18명을 포함해 63명이 한의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이날 졸업식에서 권노갑 총동창회장은 혼자 미국인 학부모와 동문 및 관계자 등 참석자들에게 보다 빠른 의사전달과 이해를 돋기 위해, 참석 귀빈중 유일하게 영어로 축사를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 학위 수여자들을 격려하는 권노갑 회장

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졸업식이 끝난 후 가진 졸업축하 리셉션에서 권노갑 회장은 「오늘 여기 모인 동문들은 동국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으며, 또한 본인도 동국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았던 닌徒步, 항시 모교를 생각하고

모교 발전은 물론 본 총동창회의 발전에도 항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록원 이사장은 「LA 동국로얄대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불교 전학이념을 이곳 미국에서 계승한 첫번째 대학이다. 이러한 전학이념을 체득하고 한의학을 공부한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의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송석구 총장은 「우리 LA 동국로얄대학교는 해외에 나온 국내 효시의 대학으로 동서양 한의학 교류의 시금석을 다졌다」고 말한 후 「참된 의술을 펼치는 진정한 동국인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번 해의 출장은 권노갑 회장이 취임한 후 첫번째로 가진 공식 일정이다.

북미주동문 서울초청 골프대회는 권노갑 회장이 서울 본회 회장단 회의를 열어 기본 계획을

세운 다음, 본회 지찬경(76 경행) 사무처장에게 구체적인 일정을 짜도록 지시한 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개최될 행사계획을 북미주총동창회에 8월 중순까지 세부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본회 사무처는 그 세부일정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양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서울 총동창회 : 권노갑 회장, 류주형 수석부회장, 신순범(61 정의·본회 부회장)전의원, 지찬경 사무처장, 윤창환 공보보좌관.

재단 : 오록원 이사장, 배도훈 쿤스님, 조재호(65 불교·본회 이사)동국의료원장, 송재운(64 철학·본회 상무이사)재단사무처장, 이형렬 계장.

학교 : 송석구 총장, 황영수(70 경제·본회 상무이사)비서실장, 송광수 새한스튜디오 사장.

북미주 및 LA : 이민희 고문, 이태근 명예회장 부부, 배시영 북미주총동창회 회장, 김경재 LA 회장, 배문혁 LA 명예회장, 김종한 LA 전회장, 서영수 동국로얄한의과대학 총동창회장, 김기승, 정선스님, 인경호(62 산학)강용구, 서정선(63 경제), 오창환(67 경영), 정정달(72 법학·본회 부회장)법사, 빅대원(75 무역), 박영규(84 정의) LA사무국장 등 동문 및 기족 200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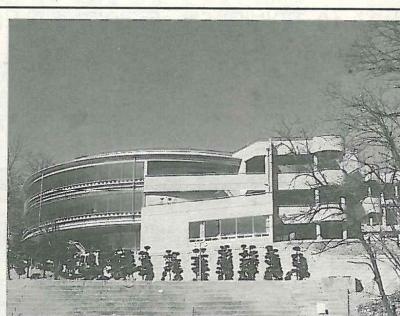
중국동문화 창립

초대회장 박인동 동문

중국에 거주하는 동국대학교 동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새 중국동문화가 마침내 지난 3월 20일 제1차 총회를 갖고 정식 결성됐다. 참석 동문중 최고 선배인 손근호(58 국문·삼성광전주식회사 회장)동문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총회에는 총회 당일까지 파악된 북경거주 모교 졸업생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동문화 회칙이 통과됨에 따라, 동 회칙에 의해 초대 회장에 박인동(83 사회·중국인민대학 공상관리학원 토지관리계 박사연구생)동문을 선출하였으며 이어 부회장, 고문, 총무, 간사등의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한편, 이번에 선출된 초대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박인동 ▲부회장=이상열(80 행정·한국수출입은행 부회장)▲수석고문=이기빈(경원 9기·대기그룹 회장) ▲명예회장=손근호(58 국문·재북경한인회 회장) ▲고문=김필수(59 철학)교수, 강태호(79 임학)교수, 백상현(77 영문·북경천지광치과기공사 고문), 장민익(81 행원) ▲감사=박철홍(87 국민윤리), 장준일(87 한의) ▲운영위원장=양의숙(85 국사교육), 차차석(85 불교), 이상은(88 선학) ▲현종용(90 중문), 도본스님(89 선학) 김기정(95 생물) ▲총무=이원호(93 법학·중국인민대학 석사과정) ▲부총무=김병철(98 중문), 이덕형(98 중문) ▲간사=윤보리(97년 중문), 박창률(95 한문) ▲동문화 연락처 이원호 총무 : 86-10-6251-8950.



◆ 모교에 신축한 정보문화관 전경



◆ 모교에 신축한 상록원 전경

새 천년을 향한 동국인의 첫걸음

東國人名錄 및 CD-ROM TITLE

발간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천년, 정보화 천년을 맞이하여 동국인맥의 산 기록이 될
 '2000년판 동국인명록 및 CD-ROM TITLE'이 발간됩니다.
 동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시키고, 동문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및
 동문애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위 동문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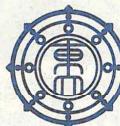
본인은 물론 주위에 알고 계시는 동문들의 연락처를 아래 양식으로 정확히 기입해 보내주십시오.

성명			학과		졸업년도	
자택	주소			전화		
직장	직장명		부서		직위	
	주소			전화		

단위별 동문회의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각급단위 동문회(지역별, 직장별, 학과별, 기별)는 조직의 회장 및 임원의 현황이 담겨있는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필동 2가 37-10 구인빌딩 5층 동국인명록 편집실 / 우)100-272
 TEL. 02)2279-8908 / FAX. 02)2274-9884



동국대학교총동창회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층 우)110-300
 TEL. 02)733-3991~3 / FAX. 02)733-3992